

ARTICLE

05

‘농악(農樂)’과 ‘풍물(風物)’의
타당성 검토와
‘농악(農樂)’ 비판에
대한 반론



김정헌 남원시립국악단

ANNUAL REVIEW I

99 서론

99 '농악(農樂)' 과 '풍물(風物)'
의 타당성 검토

1. 조선시대 '농악' 과 '풍물' 의 용례
와 변천
2. 일제강점기 '농악' 과 '풍물' 의 용
례와 변천
3. 해방 이후 '농악' 과 '풍물' 의 용례
와 변천

107 '농악(農樂)' 비판에 대한
반론

109 결론

‘농악(農樂)’ 과 ‘풍물(風物)’ 의 타당성 검토와 ‘농악(農樂)’ 비판에 대한 반론

김정현

남원시립국악단

투고일자 : 2009. 10. 24 | 심사일자 : 2009. 11. 27 | 게재확정일자 : 2009. 12. 08

국문초록

이 글은 ‘농악(農樂)’ 과 ‘풍물(風物)’ 두 용어의 합리성과 효용성에 관한 논의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사료검토를 바탕으로 한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농악’ 과 ‘풍물’ 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가를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사료를 인용하여 논의의 역사적 맥락과 근거를 확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까지 ‘농악’ 에 가해진 많은 비판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그 오류를 지적하였다. 본론에서는 ‘농악’ 을 비판한 의견들에 대한 재반론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농악’ 과 ‘풍물’, ‘풍물굿’ 과 ‘풍물놀이’ 등의 용어를 포괄하여 그 의미와 합리성을 검토하였다.

‘풍물’ 은 조선시대부터 악기의 의미로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왔고 현재에도 악기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역사적 정통성을 고려할 때 공연양식으로서의 ‘농악’ 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농악에 사용되는 악기’ 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매우 합리적이다. ‘풍물’ 이 한자말이 아니라 순우리말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만한 논거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 말이 한자말이라는 것은 재삼 강조해 둔다. ‘풍물굿’ 은 ‘풍물로 하는 굿’ 이라는 의미로 글자 그대로 보아서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은 인정되지만 1980년대 소수의 지식인들이 만들어 낸 신조어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 더구나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풍물놀이’ 는 종합예술인 농악을 지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놀이, 제의, 연극, 음악, 무용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농악을 놀이라고 한정하여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농악’ 은 농경사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농민들 스스로가 창조하고 발전시킨 민중적 종합예술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전통성, 사용빈도, 인지도 등으로 보아서 가장 합리적인 용어라고 판단된다.

서론

'농악(農樂)'과 '풍물(風物)'은 동일한 전통공연예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때때로 두 용어를 사용하는 논자들은 대립적인 양상을 띠기도 하였다. 1980년대 이래로 '농악' 대신에 '풍물', 혹은 '풍물굿'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었고 대부분의 대학풍물패와 민중문화운동 단체에서는 '농악'을 금기시했으며 '풍물', 혹은 '풍물굿'을 지지하였다. 그 이후로 '농악'이라는 용어는 줄곧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상당히 폭 넓은 공감과 지지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농악'에 대해 비판적인 일련의 논의들은 그것을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역사적 사료에 의거하지 않아 마치 일방적인 선언처럼 표출된 측면이 적지 않았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농악'과 '풍물' 두 용어에 관한 진지한 연구와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악은 현재 한국의 전통공연예술 중에서 가장 많은 동호인 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은 농악이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대중예술이라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농악의 대중적 확산과 더불어 '농악'과 '풍물', 두 용어의 대립과 혼란도 확산되었다. 농악의 전문 공연자, 비전문적 동호인, 농악 연구자,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해묵은 난제가 되어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개념의 혼란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향후 개념의 정리를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다.

이 글에서는 일관되게 '농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농악'이라는 용어가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있으며 그 나름대로 합리적이며 정통성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농악'과 '풍물', 두 용어를 검토함에 있어 먼저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사료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농악'과 '풍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한국의 전통연희가 대부분 그러하듯 농악

은 민중들 속에서 구비전승, 행위전승된 것이어서 상세한 문자 기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세밀한 묘사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농악연구자들이 문자 사료를 적극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연구자는 문자 사료를 통한 농악연구가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사료를 인용하여 논의의 역사적 맥락과 근거를 확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까지 '농악'에 가해진 많은 비판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그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농악'을 비판한 의견들에 대한 재반론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농악'과 '풍물', '풍물굿'과 '풍물놀이' 등의 용어를 포괄하여 그 의미와 합리성을 검토할 것이다. 아직까지 '농악'과 '풍물'이라는 두 용어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980년대 주창된 논의들이 단순 재생산되고 있는 지금, 이 연구를 통해 한층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올바른 용어 정착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농악(農樂)'과 '풍물(風物)'의 타당성 검토

1. 조선시대 '농악'과 '풍물'의 용례와 변천

본래 농악은 고려 말, 조선 초에 그 형태가 생겨나 조선 중기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조선후기에 이르러서 오늘날의 농악과 같은 형태로 완성되었다. 조선시대 농악은 첫째, 농민들의 공동노동 공동체에서 작업의 수고를 덜고 능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악기 연주와 노동요 등이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공연물로 나타난 두레 농악, 둘째, 조선 이전부터 전승되어온 나례 등의 구나 의식(驅灘儀式)이 민간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신밧기 등 민간고유의 구나의식으로 발전한 축원농악, 셋째, 조선 초기에 사원 혁파로 절에서 쫓겨난 승려들이 재승(才僧)

이 되어 민간마을을 떠돌면서 비밀리에 불공행사를 하고 가무희(歌舞戲)를 팔아 연명하면서 연희하던 걸립농악, 냇재, 조선시대 재인청 소속의 세습무계 광대, 북방 유목민계통의 양수척, 그밖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던 유랑광대들이 다른 전통연희 종목과 함께 공연하던 연예농악, 이렇게 네 가지 흐름으로 전개된다. 이 네 흐름은 독자적으로 전개되기도 하지만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다. 때로는 서로 영역이 중복되기도 하며 인적 교류도 발생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마침내 농악은 독립적인 전통연희로서의 면모를 확립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농악은 공연하는 담당층이 다양했으므로 농악을 부르는 명칭도 다양했다⁰¹.

첫째, 농민들이 들에서 일할 때 노동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연주하는 농악은 사고(社鼓), 사고악(社鼓樂) 등으로 표기되었다. 토지신인 사신(社神)에 대한 제사활동을 사제(社祭)라 하고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을 사일(社日)이라 하여, 봄에 지내는 사제는 춘사(春社), 가을의 사제를 추사(秋社)라 하였다. 본래의 사고(社鼓)는 사일(社日)에 치는 북이라는 의미로 제사가 끝난 후의 여흥을 즐기는 오락행위이며, 그 자체를 농악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조선시대의 사(社)는 공동체 조직을 의미하여 농민들의 공동노동조직인 두레를 농사(農社)라 하였으므로 사고(社鼓)는 때때로 농악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조선말의 시인이자 <제국신문>을 간행한 언론인 최영년(崔永年)은 19세기 두레의 풍속에 대해서 국한문을 혼용해서 기록하였는데, 두레농악을 ‘사고(社鼓)’로 표기하였다.

• 옛 풍속에 7월 중순이 되면 서울 교외에서부터 각 지방에 이르기까지 논매는 일이 다 끝난다. 이때에 술과 떡을 마련하여 함께 즐기니 이를 호미씨시라 한다. 붉은팔 꽃 더미에 장맛비가 개이고 밭 가운데 도롱이에 서늘함 스며드네 동쪽 집 탁주 빛고 서쪽 집 떡 만들어 등등 울리는 두레농악(社鼓) 소리에 취하여 춤추네⁰².

위의 기록은 7월의 호미씻이 풍경을 묘사한 것인데 위에 쓰인 ‘사고(社鼓)’는 전통적 농신제사인 사제(社祭)에서 쓰이는 음악을 말함이 아니라 두레조직의 행사에 쓰인 농악을 의미한다. 이익(李瀾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풍악이 울리면 피리를 불고 장고(杖鼓)를 치면서 한껏 즐긴 후에 그 놀이를 파한다⁰³.”고 하여 호미씻이의 농악에 장고(杖鼓)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궁궐이나 민가에서 벽사축원(辟邪祝願)을 위해 요란한 타악기를 울리며 귀신 쫓는 소리를 지르는 나례 등의 초기 축원농악(祝願農樂)을 가리켜 매귀희(埋鬼戲), 매귀유(埋鬼遊), 방매귀(放埋鬼), 화반(花盤) 등으로 불렀다.

- 매귀희(魅鬼戲)가 마을을 돌면서 쌀과 돈을 구걸하는 것을 걸공(乞供)이라 부른다⁰⁴.
- 북과 방울을 울리면서 문 밖으로 몰아내는 흥내를 내는데, 이를 방매귀(放埋鬼)라 한다⁰⁵.
- 매년 정월 보름에 마을 사람들이 기를 세우고 북을 두드리는데 이를 일러 매귀유(埋鬼遊)라 한다⁰⁶.
- 주민들이 징과 북을 치면서 신독을 인도하여 동리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두 다투어 재물과 돈을 내놓고 굿을 한다. 이것을 화반(花盤)이라고 한다⁰⁷.

01 김정현, 2009, 『한국농악의 역사와 이론』, 한국학술정보, pp.101~102

02 崔永年, 『海東竹枝』, 名節風俗 七月 洗鋤宴: 舊俗 七月中旬 自郊外遍于各地 鋤禾已畢 酒餅相樂 名之曰 호미씨시 紅豆花棚積雨晴 田中襖襖趁 涼生 東家濁酒西家餅 醉舞琴瑟社鼓聲.

03 李瀾(1681~1763)『星湖僿說』卷之十 人事門 養老: 至樂作 村簫杖鼓 盡歡而罷.

04 李鈺(1760~1813), 『鳳城文餘』 乞供: 魅鬼戲之流行村落 求索米錢者 亦名曰乞供.

05 成俔(1439~1504), 『慵齋叢話』卷之二: 歲時名日所舉之事非一除夜前日 聚小童數十名爲侏子 被紅衣紅巾 納于宮中 觀象監備鼓笛 方相氏臨曉驅出之 民間亦做此事 雖無侏子 以綠竹葉紫荊枝益母莖桃東枝 合而作帚 亂擊樞戶 鳴鼓鉦而驅出門外 曰放枚鬼.

06 『輿地圖書』下卷 補遺篇 慶尙道(1757): 埋鬼遊每年正月望日 閭里之人建旗擊鼓 謂之埋鬼遊.

07 『東國歲時記』, 正月 元日: 每自元日至上元 名巫現神靈 作舞戲 鉦鼓前導出入閭里 民人爭 捐財錢 以賽神 曰花盤.

셋째, 승려들의 시주에 사용되는 농악은 법고(鼓法), 걸공희(乞供戲) 등으로 불렸으며 이렇게 '농악'을 하며 민가에 돌아다니는 승려들을 법고승(法鼓僧), 굿라고 불렀다.

- 중들이 북을 지고 시가로 들어 와서 북을 치면서 집집이 도는 것을 법고(法鼓)라 한다⁰⁸.
- 흥국사 중들이 걸공희(乞功戲)를 일삼다⁰⁹.

법고승은 농악대를 꾸며서 걸립을 나서거나, 큰 법고를 길가에 세워두고 탁발하는 등 형편에 따라 여러 형태로 꾸러졌는데 조선 후기의 풍속화에 이 여러 가지의 양상이 그려져 있다¹⁰. 승려들의 수요가 많고 악기와 연주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농악대를 꾸렸고 소수의 승려일 경우에는 목탁을 치고 경을 읽거나 법고를 치는 등의 행위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권용정(權用正 1801~?)의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에 묘사된 법고승의 공연 장면은 오늘날의 농악대의 판굿 공연을 나타내고 있다.

- 법고승은 마을의 거리에 모여 초립을 쓴 채 북과 징을 치고 푸른 깃과 종이로 만든 꽃을 비녀 삼아 꽃고 노란 장삼을 걸치고 부절을 들고 배우나 광대처럼 둥글게 모여 춤을 추면서 돈이나 곡식을 얻어 부처님께 공양한다¹¹.

그 외에 유랑광대들의 농악을 특별히 지칭하는 용어는 발견되지 않고 그들의 연희 전체를 '잡희', '사당놀이'라고 하였다. 또 그들의 농악은 무동놀이가 중심 연희이기 때문에 '무동(舞童)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판관이 기악(伎樂)과 잡희(雜戲)로 반마장이나 나와 맞이했다¹².

• 흰 고깔에 붉은 치마를 입고 사람의 어깨 위에서 춤을 춘다. 춤을 잘 추는 자는 혹은 삼층에서도 춤을 추는데 이를 무동패라 한다¹³.

• 소위 거사라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여자 십여 명을 거느리고 각처에 흩어져 도회시장에서 노래하고 춤추어 그 것으로 생활을 했다. 송화의 구월산과 안성의 청룡사 등지를 그 근거로 하여 스스로 한 마을을 이루었다. 이를 가리켜 사당놀이라 하였다¹⁴.

'농악'이 언제 최초로 쓰였는지 정확한 시점을 지적하기 어렵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890년경 매천(梅泉) 황현(黃玗)의 『매천야록(梅泉野錄)』이다.

- 대개 시골에서는 여름철에 농민들이 징과 팽과리를 치면서 논을 댔다. 이것을 농악(農樂)이라고 한다¹⁵.

황현이 기록한 '농악'은 두레농악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1890년대에 '농악'이라는 용어는 두레농악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농악'은 『갑오기사(甲午記事)』에서도 발견되는데 『갑오기사』는 충남 서천의 시골 유생 최덕기(崔德基)가 쓴 40년간의 일기 중에서 1894년의 일기이다. 이 일기는 갑오년 당시 서천지방을 비롯한 그 일대에서 동학의 전파와 농민군의 활동, 그리고 전투상황 등이 시골 유생의 눈을 통해 현장감 있게 정리된 자료이다.

- 야삼경에 마을 사람들이 농악(農樂)을 크게 울리며 말하기

08 『東國歲時記』, 正月 元日: 僧徒負鼓 入街市擗動 謂之法鼓 或展募緣文 或 鉢念佛 人爭擲錢.

09 吳弘默(1834~?), 『全羅南道麗水郡叢錄』: 興國寺僧徒乞功戲述即事.

10 신윤복의 풍속화 <노상탁발>에는 큰 법고를 길가에 세워두고 탁발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으며 19세기 김준근의 기산풍속도첩에 실린 <굿종패>는 농악대와 무동까지 갖춘 법고승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11 權用正(1801~?), 『漢陽歲時記』正月 十五日: 法鼓僧者 繼徒聚街坊 擊鼓鏡草笠 簪翠羽紙花 着黃衫毡節 環舞狀若優倡 乞得金穀 以供奉.

12 許筠(1569~1618), 『惺所覆瓶藁』卷之十八 文部十五 紀行上 漕官紀行 辛丑(1601)九月 七日: 判官出伎樂雜戲于半程以返.

13 崔永年(1856~1935), 앞의 책, 俗樂遊戲 舞童牌: 白衲紅裙舞於人肩 上善舞者 或三層稱之曰무동패.

14 崔永年, 앞의 책, 俗樂遊戲 沙爐牌: 舊俗所謂居士輩 率女唱十餘隊隊 出發散于各處歌舞於都會市 以爲生活其根據於松禾九月山 安城靑龍寺等地 自作一村名之曰사당노리.

15 黃玗(1855~1910), 『梅泉野錄』一券下 甲午以前: 蓋野鄉夏月 農人擊鈔鏡 以相鉦鈔 謂之農樂.

를 “모두 한 무리를 유지하여 가락암(可樂岩)으로 가서 화적을 물리치자”고 하였다¹⁶.

위의 기록은 1894년 9월 3일의 일기인데, 여기에 기록된 ‘농악’은 노동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들판에서 울리는 두레농악이 아니라 화적을 물리치기 위해 싸움터로 출정할 때 울리는 군악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로써 19세기 후반에는 팽과리, 징, 장구, 북이 어우러져서 합주를 하는 것을 ‘농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풍물’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자. 고려시대 기록에서 ‘악기(樂器)’라는 용어는 흔하게 발견되며 ‘풍물’도 적잖이 발견되지만 고려시대의 ‘풍물’이 함의하는 바에는 아직 악기라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았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자연 경관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였는데 이제현(李齊賢)의 『역옹패설(楮翁稗說)』에 기록된 경우가 대표적인 실례라 할 수 있다.

- 충숙왕 6년(1319). 상왕(上王)이 강남(江南)에 강행(降幸)하는 데에 호종하다. 상왕이 누대(樓臺)와 풍물(風物)이 좋은 곳에 이르러 흥을 일으키고, 회포를 풀 때면 번번이 조용히 말하기를, 『이런 곳에 이생(李生)이 없을 수 없다』하였다¹⁷.

대략 15세기를 전후하여 ‘풍물’에 악기를 지칭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풍물’은 ① 자연의 경치 ② 생활풍습 ③ 악기,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①과 ②의 두 경우를 제외하고 ③ 악기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만을 살펴본다.

조선전기 학자이자 문인인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은 “나라의 아악으로 말하면, 박연(朴堧) 후에 사족(士族)으로는 칭할 만한 자가 없더니” 네 명의 선비가 나타나 아악의 대를 잇고 있다고 하면서 임흥(任興), 이

정은(李貞恩)과 이충(李攄), 그리고 정자지(鄭子芝) 등을 꼽았다. 그 중에서 이정은의 거문고 솜씨가 제일 낫다는 평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정은은 자신의 집에 풍물(風物)이 없어 전혀 연습을 안 하다가, 아무 악기나 손닿는 대로 연주하여도 그 음률이 순수할 만큼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⁸. 여기서 ‘풍물’은 악기를 가리키며 그것도 타악기가 아닌 거문고를 의미하고 있다. 거문고는 선율악기로서 악기중의 으뜸인 ‘백악지장(百樂之丈)’으로 불렸으며 선비들의 풍류에 필수악기였다. 남효온의 진술은 15세기에 사용된 단어 ‘풍물’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남효온 이후의 기록들에서는 악기를 의미하는 ‘풍물’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연산군 시대에 다수 발견된다.

- 장악원에 전교하기를 “악인의 수가 전보다 갑절인데 악기의 수는 적으니, 풍물(風物)에 드는 재목을 평시서(平市署)로 하여금 사들여서 시기에 미쳐 만들게 하고, 외방으로 총률(摠律)을 나누어 보내어 모든 악기의 재료를 빨리 채취하여 바치게 하라.” 하였다¹⁹.
- 전교하기를, “경상·전라도에 각각 총률(摠律) 2인을 보내어 풍물(風物)에 쓸 죽재(竹材)를 많이 채취해 오라.” 하였다²⁰.

기록에 나오는 장악원은 조선시대 음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으로 각종 제사와 의례, 각종 행사 등의 음악과 음악교육, 악공, 악생의 관리를 담당했다. 세조는 음악담당 관청의 통폐합을 단행했는데 아악서와 전악서를 장악서로 통합하였고 성종 즉위를 전후한 시점에서 장악서를 장악원으로 개칭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풍물’은 장악원에서 궁중음악을 연주할 때 사용하는 악기를 나타낸다.

16 崔德基(1874~1929), 『甲午記事』, 甲午(1894) 九月初三日: 夜三更 村民大動擊農樂曰 皆持一丫 以去可樂岩 杜火賊云云 而引走去可樂岩.

17 李齊賢(1287~1367), 『樸翁稗說』, 附錄 益齋先生年譜: 從上王江南降幸 王於樓臺風物 遇興遣懷 每從容曰 此間不可無李生也.

18 南孝溫(1454~1492), 『秋江先生文集』, 卷之七 雜著 冷話: 余與正中遊松都彈琴時親 見士人妓女皆泣下 聖居山僧不涕出者無幾 還都之日 乘馬踰躡 行人立聽 伯牙千載之後 非此人爲誰乎 氣偏之語 無乃過當 百源有秋嘗備樂器 日夜肄習 百源有秋嘗備樂器 日夜肄習 正中家無風物 行行到處偶執他樂器 而音律恂如也 余嘗服其手藝甚高也.

19 『燕山君日記』, 五十七卷 燕山君 十一年(1505) 一月 十二日: 傳于掌樂院曰 樂數倍前 而樂器數 風物所入材木 令平市署貿易 及期造作 分遣摠律于外方 凡樂材趁時採進.

20 『燕山君日記』, 五十七卷 燕山君 十一年(1505) 一月 二十三日: 傳曰 慶尙 全羅道 各送摠律二人 風物竹材多數採來.

• 뜰건대 본래 사직 자리에는 단유(壇壝)가 완연하고, 신주실(神主室), 전사청(典祀廳), 주방, 풍물고(風物庫) 등이 있다고 하니, 그대로 옛터를 수리하여 정결하게 제사지내는 것이 의리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게 명하여 의논해 처리토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²¹.

위의 기록은 임진왜란의 와중에 피폐해진 사직단에 관한 보고를 담고 있으며 사직서에는 부속 건물로 악기를 보관하는 풍물고(風物庫)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순조실록』에도 사직서의 악기고에 불이 나서 불탄 풍물(風物)과 관복 등을 속히 개조하라고 명하였다는 기록²²이 있다.

‘풍물’이 궁궐이나 양반의 풍류방을 벗어나서 민중들의 생활현장에서 사용되는 악기에까지 외연이 확장된 것은 조선후기였는데 대략 18세기와 19세기 사이에 농악에 사용하는 타악기 등속을 일컫는 용어로도 쓰이기 시작하였다.

• 정오에 소를 타고 신평진(新楓津)을 건너 대둔사(大菴寺)에 갔다. 해가 이미 저물어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이 절의 승려 삼십여 명이 풍물(風物)을 갖추고 십팔일 동안 마을을 돌며 곡식을 얻어 가지고 오늘 비로소 절로 돌아왔다²³.

위의 『노상추일기』는 조선후기 무반의 한 사람인 노상추(盧尙樞 1746~1829)의 일기이다. 기록에 나오는 대둔사는 구미 선산에 있는 사찰로 1802년 이 사찰에서 승려 삼십 명이 18일간 걸립을 하였고 승려들이 걸립에 사용한 악기는 ‘풍물’이라고 되어 있다.

이상으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풍물’이라는 용어는 고려시대까지는 풍속이나 풍경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조선초 이후로 악기의 의미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풍물’이 지칭하는 악기는 조선 전기에는 궁중음악인 아악에 쓰이는 악기에 한정되었지만 대략 18~19세

기 초에 민간의 농악에 사용되는 타악기까지 포괄하여 지칭하게 되었다.

2. 일제강점기 ‘농악’과 ‘풍물’의 용례와 변천

일제강점기에는 여러 용어들이 혼용되었다. 1920년대에는 ‘매귀(埋鬼)’, ‘걸궁(乞窮)’, ‘걸립(乞粒)’, ‘풍물’ ‘농악’ 등 여러 용어들이 함께 사용되었다. 1920년대 ‘풍물’이 사용되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 마산의 <메이데이> 풍물(風物)을 두다리며 행렬 <동아일보 1921.5.1>
- 노동야학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얻고자 풍물(風物)을 치고 다니던 중 <동아일보 1923.8.19>
- 갱거리 증 장구 할 것 업시 여러 가지 풍물(風物)을 마추어 칩니다 <동아일보 1927.3.14>

‘풍물’은 주로 “두다리고” “치고” “마추어 치는” 것으로 타악기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갱거리 증 장구 할 것 업시 여러 가지 풍물(風物)”이라는 표현에서 그러한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농악’이 사용되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 농군들이 전야에서 산가(山歌)를 부르며 농악(農樂)을 주(奏)하야 <개벽16호 1921.10.18>
- 도선장 방축코저, 농악으로 순회 수연(收捐) <조선일보 1926.3.7>
- 주당 마진 신부위해 농악(農樂) 치고 기도 안한다고 육한 것이 동그<동아일보 1926.5.11>
- 농악에 발 맞춰 3천 농민 회합 <조선일보 1927.2.21>
- 농악을 울리며 당일을 기념한 마산의 농민<조선일보 1928.5.3>

21 『宣祖實錄』四十八卷 宣祖 二十七年(1594) 二月 九日：聞 社稷 本處，壇壝 宛然 神主室 典祀廳 廚所 風物庫 亦有之 仍修舊基 精潔享祀 似合義理 幸 命大臣議處 上從之。

22 『純祖實錄』五卷 純祖 三年(1803) 十一月 四日：社稷樂器庫失火 上遣承旨奉審 臨軒以待其回奏 旋因禮書啓 慰安祭不卜日設行 命風物冠服被燒者 令該書 卽速改造 鐘磬設廳造成 以趙鏡寬 尹光普 差都監堂上。

23 盧尙樞(1746~1829), 『盧尙樞日記』, 純祖 二年(1802) 壬戌日記 十一月 二十九日丙申：午余騎牛，渡新楓津，往大菴寺，日已暮止宿。寺僧三十餘名，具風物乞穀村閭十八日，而今日始還寺云。夜風。

‘농악’은 “치고” “연주”하고 “울리고” 등의 표현을 쓰는데 주로는 예술 장르를 지칭하는 용법으로 쓰인다. “농악에 발 맞춰”, “농악으로 순회” 등의 표현이 그러한 용법임을 알 수 있다.

‘풍물’과 ‘농악’ 이외에 기타 ‘매귀(埋鬼)’, ‘걸궁(乞窮)’, ‘걸립(乞粒)’ 등이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걸립(乞粒)으로 동정금 모집 소방조 신계획 <동아일보 1926.3.5>
- 걸궁(乞窮)노리로 집금 <동아일보 1927.2.26>
- 농민야학 유지로 매귀(埋鬼)조직 흥행 <조선일보 1929.2.14>

위의 용법들은 대부분 공연목적에 따른 농악의 특정한 공연유형을 지칭한다. 즉,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걸립농악을 지칭할 때 ‘매귀(埋鬼)’, ‘걸궁(乞窮)’, ‘걸립(乞粒)’ 등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이후에는 ‘농악’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빈도수가 많아진다. 아직 ‘매귀(埋鬼)’나 ‘걸립(乞粒)’ 등의 용어는 남아있지만 별반 사용되지 않는다.

- 매귀(埋鬼)쳐서 모은 돈 유치원에 기증 <조선일보 1932.3.1>
- 보문학원을 위해 걸립대를 조직 <조선일보 1936.2.15>

‘풍물’ 역시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된다. ‘풍물’을 사용하는 신문기사가 확연히 줄어들며 그 중의 한 기사는 ‘농악’과 ‘풍물’을 한 문장에 동시에 표기하면서 ‘풍물’ = ‘농악기(農樂器)’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한자만을 사용하여 ‘風物’로 표기하기도 하고 국한문을 혼용하여 ‘풍물(風物)’로 표기하기도 한다.

- 風物 흥행하고 경찰에 피검 <중앙일보 1932.2.25>
- 농악대원들은 풍물(風物)을 끈졌다 <동아일보 1938.8.7>
- 동리마다 풍물(風物)을 치고 큰 기빨을 날리며 <동아일보 1938.1.5>

1930년대는 ‘농악’으로 용어가 통일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농악’의 사용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아진다.

- 농기 들고 농악(農樂)노리 <삼천리 제4권 제12호 1932.12.1>
- 농악(農樂)를 선두로 열렬아래 맹활동 <동아일보 1934.8.29>
- 농악(農樂)를 두다리며 금주단연禁酒斷煙 선전 <동아일보 1933.3.4>
- 농촌생활단상 농악(農樂)소리 들릴 때 <동아일보 1933.7.30>
- 농악으로 집금(集金) <동아일보 1934.2.27>
- 일동노동자들 농악(農樂)로 동정 <동아일보 1934.3.5>
- 농악대(農樂隊) 등 민속놀이를 열다 <동아일보 1937.6.6>
- 영화에 수록된 강릉농악대 <동아일보1937.6.23>
- 상후리 농악대회(農樂大會) <동아일보 1937.9.24>
- 강능의 농악대 룡림때 상쇄와의 일문일답기 <동아일보 1938.01.04>
- 강릉농악경연대회(江陵農樂競演大會) <동아일보 1938.5.23>
- 강릉농악경연 건전한 오락을 조장 농악예술의 정화 <동아일보 1938.5.24>
- 강릉농악경연 대회역원도 결정 <동아일보 1938.5.30>
- 농악대 편전(便戰)되어 9명 중경상 <동아일보 1938.7.19>
- 충주 농악단 충돌사건 피검자 19명중 11명은 석방 <조선일보 1933.7.3>
- 향토 문화의 새폭발 농악 전라도 걸궁때 <조선일보 1938.4.25>

1930년대에 ‘농악’의 사용이 우세해지는 것은 조선 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과 <농촌향토오락진흥>의 영향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운동>은 1932년 시작되었는데, 물심일여의 정신생활, 자급자족, 농가 노동력의 완전 소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총독부는 농촌진흥운동을

통해 공황으로 인한 농촌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촌 통제를 강화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식민통치질서의 위기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또한 조선 총독부는 1930년대 후반부터 <농촌향토오락진흥>을 실시하는데 이는 여러 장르에서 진행된 황민화 문화 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공문서 등에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였을 것이며 이를 위해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 중에서 '농악'이 취사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1930년대는 각종 <농악경연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러한 대회는 전국적 행사로 진행되었으므로 '농악'이라는 용어가 전국적인 표준어로 통일된 시기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 해방 이후 '농악'과 '풍물'의 용례와 변천

해방 직후에는 '농악' 이외의 다른 용어들은 공식 석상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전국적으로 표준어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어들은 도태된 상태였다.

- 제1회 농악경연대회가 창경원에서 개최 <중앙신문 1946.5.15>
- 사설 농악의 진흥 <문화일보 1947.5.22>
- 시가행렬 농악 경연대회<서울신문 1948.8.16>
- 농악 각희대회 개최 <강원일보 1948.10.16>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는 '풍물'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풍물'이 공식문헌에 등장한 것은 남사당놀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하면서부터이다. 인명 위기에 놓인 기예능을 보호하고 전승하자는 취지에서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자 남사당놀이가 첫째 조사대상이 되어 1964년에 남사당의 꼭두각시놀음이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고 송복산과 남운용이 예능보유자가 되었다. 이어서 심우성은 1968년 『무형

문화재조사보고서 제40호 남사당』에서 남사당놀이에 6개의 놀이 종목이 있는데 그 중 첫째가 '풍물'이라고 하였다. 같은 해인 1968년 7월에는 당시 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 꼭두각시놀음의 예능보유자였던 남운용이 『신동아』에 직접 본인의 남사당패 활동에 관한 회고의 글을 기고하는데 이 글에서 '풍물'을 이야기 한다.

- 상쇠는 二十四명 風物팀의 우두머리다. 말하자면 農樂隊 대장격이다²⁴.

남운용은 '풍물'을 그냥 한자어 '風物'로 표기하면서 풍물팀이 농악대라는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이는 심우성이 "풍물을 한자로 風物이라 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차음표기일뿐 아무런 연관이 없다"²⁵고 주장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주장이기도 하다. 남운용과 심우성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공식용어로서는 용도 폐기되었던 '풍물'이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만 해도 '풍물'은 주변부의 언어였고 주류는 '농악'이었다. 해방 직후부터 1979년까지 대략 30여 년간 상업적 흥행을 목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던 포장 걸립농악패들이 모두 단체의 명칭을 <○○농악단>이라고 한 사실만 보아도 '농악'이 전국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용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풍물'의 시대가 열린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1970년대부터 탈춤부흥운동, 마당극 운동 등을 이끌어 온 민중문화운동세력은 학술용어이자 공식 언어로서 고착된 '농악'의 권위에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노광일²⁶은 '농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① '농악'은 농사꾼이 하는 음악, 즉 농사일에만 쓰이는 음악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 ② '농악'은 단지 음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춤, 재담, 진풀이, 즉 놀이 의식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닌 종합적인 표현 매체로서의 개념이 되지 못한다. ③ '농악'이라는 용어는 현장생활인들이 만든 용어가 아니다. ④ '농악'이라는 용어는 일제

24 남운용, 1968, 「庶民의 喝采속에 流浪 五十年-男寺黨演戲로 坊坊谷谷 누버」, 『신동아』1968년 7월호, p.265

25 심우성, 1988, 「사물놀이 명칭의 숨은 내력」, 『민중문화론 서설』, 동문선, p.300

26 노광일, 1985, 「풍물의 새로운 이해」, 『문화운동론1』, 공동체, p.268

강점기에 강제로 지정된 것으로 일본의 가면극 농악(能樂)의 발음인 '노가꾸'를 농악이라 이름 붙여버린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노광일의 주장이 발표된 이듬해인 1986년 정병호²⁷는 '농악'이라는 말이 문헌상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1936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일본인 학자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부락제(部落祭)』라는 책에서였고, 따라서 농악이라는 말은 일제강점기에 생긴 말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여 노광일의 의견에 신빙성 있는 근거를 뒷받침하였다. 정병호가 1930년대 일본인 학자로부터 '농악'이라는 용어가 기원되었다고 주장한 이래 이 학설은 기정사실로 굳어져 그 후 20여 년 동안 학계의 정설로 인정되었다.

정병호의 주장은 1년 후 김인우(김원호)에 의해서 좀 더 확장된다. 김인우²⁸는 '농악'이 잘못된 용어라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조선시대의 지배계층과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통치적 의도에 의해 민중적 대동성이 거세되어버린 조작된 용어이고 둘째, 그 영향을 받아 뿌리 없는 지식인과 학자들이 서양 장르적인 관점으로 사용하여 총체적인 삶의 체계와의 연관이 부정되어 버린 소위 학술용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농악'의 대안으로는 '풍물이 추가되는 곳'의 개념으로 '풍물곳'이 정확한 개념이라는 것이었다. '농악'을 사용하지 말고 '풍물곳'을 사용하자고 한 김인우의 '풍물곳'론은 '농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해방 이후 심우성에 의해 최초로 제안된 '풍물'은 노광일-정병호-김인우 등의 순차적인 주장에 의해 공고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고 '농악'은 서서히 주변부로 밀려났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많은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 내었다. 김현선²⁹은 정병호가 주장한 1936년 '농악' 기원설에서 더 나아가, 1931년 일본인 학자 고세이(吳講)가 지은

『조선의 연중행사』라는 책에 '농악'이 최초로 실려 있다는 주장을 새롭게 내놓았다. 그는 일제강점기 이루어진 일본인에 의한 농악연구가 식민지 지배정치의 일환이었으므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농악'이 이후에 기득권을 지니고 쓰이게 되어, 현장과는 한참 격리된 일상이어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주장현³⁰은 농악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시기는 일제강점기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조선시대까지는 농민, 농촌이란 말도 없었고 조선시대의 농악 운운하는 표현은 문헌상으로는 민중의 현장용어로나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악은 문자 그대로 '농촌의 음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민약에 '농촌의 악'이라서 농악이라면 현재 도시민이 치는 악은 '市樂', 공장에서 치는 악은 '工樂', 학생들이 치면 '學樂'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였다. 그리고 김인우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풍물곳'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풍물곳'에서 '곳'을 떼어내고 '풍물'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풍물'은 실상 악기를 뜻함을 감안한다면 잘못된 용레이므로 '풍물곳'과 '풍물'은 가려서 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주장에 대해 '농악'을 사용하는 쪽에서는 이렇다 할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도권의 무형문화재 정책은 여전히 "농악의 전통을 보전"하는 것이었고 여전히 '농악경연대회'는 해마다 개최되었다. 그 결과 전국의 중요무형문화재, 시, 도무형문화재에는 모두 '농악'이 사용되었다. '풍물놀이'는 처음에 심우성에 의해 남사당놀이의 하나로 소개된 이래 '농악과 풍물' 논쟁에서 비켜서 있다가 1990년대 사물놀이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사물놀이의 공연 레퍼토리 중에서 선반 판굿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제도권 속으로 빠르게 진입하게 되었다. 1980년대의 '풍물곳'이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대학생과 민중문화운동 세력 내부에서만 통용되었다면 1990년대의 '풍물놀

27 정병호, 1986, 『농악』, 열화당, p.17

28 김인우, 1987, 『풍물곳과 공동체적 신명』, 『민족과 곳』, 학민사, pp.102~103

29 김현선, 1991, 『風物곳에서 四物놀이까지』, 귀인사, pp.26~27

30 주장현, 1997, 『우리문화의 수수께끼2』, 한겨레신문사, pp.127~129

이'는 이전에 이루어진 '농악' 비판으로 인해 발생한 '농악'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대중들 속에 자연스럽게 파고들었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국어사전에 표준어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농악'과 '풍물놀이'는 한국의 전통공연예술을 지칭하는 언어로 공인되었고 '풍물'은 악기를 의미하는 용어로 정리되었다. '풍물'은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농악(農樂)' 비판에 대한 반론

'농악'에 대한 검토는 아무래도 기존의 비판에 대한 변론 형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농악'에 집중된 비판들이 상당히 많았던 만큼 그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야 '농악'의 합리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농악'을 비판하는 여러 의견들 중에서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서 반론을 해 보기로 한다.

첫째, '농악'은 단지 음악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춤, 재담, 진풀이, 놀이, 의식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닌 종합적인 표현 매체로서의 개념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이 주장은 동양의 '악(樂)'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된다. 동양의 악(樂)은 서양의 장르론에 입각한 음악(music)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악론(樂論)은 유가(儒家)의 악론을 수용한 것인데, 유가의 악론에서 '악(樂)'이란 용어는 '성(聲)', '음(音)'과 구분되어 사용된다. 사람의 마음이 외물에 감동되어 비로소 움직여 나타난 것이 '성(聲)'이고 소리가 서로 감응하여 변화가 생겨 곡조를 이룬 것이 '음(音)'이고 음이 어울려 악(樂)이 생성되는데 간척(干戚)과 우모(羽旄)³¹가 곁들여진 것을 '악(樂)'이라 한다. 따라서 '악(樂)'이라 할 때에는 악(樂), 가(歌), 무(舞)가 모두 갖추어진 형태를

이른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예기(禮記)』중 「악기(樂記)」에 있다.

무릇 음(音)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사물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마음이 사물에 감응하면 감정이 격동하여 소리(聲)가 되어 나타난다. 각종 소리가 서로 호응하면 그 가운데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소리의 변화가 곡조를 이루는 것, 이것을 음(音)이라고 한다. 그 음을 여러 가지로 조합하여 악기로 연주하고, 다시 그 위에 간(干), 척(戚), 우(羽), 모(旄)를 잡고 춤추는 것을 악(樂)이라 한다³².

유가의 악(樂) 사상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쳐 『삼국사기』 「악지」, 『고려사』 「악지」, 『세종실록』 「악학궤범」 등에 고스란히 이어져 왔다. '농악'은 양반계층의 유학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1890년대 『매천야록』을 쓴 조선말의 유학자 매천 황현이나 『갑오기사』를 쓴 충남 서천의 유생 최덕기 등의 글에서 '농악'이라는 용어가 보이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렇다면 농악에 사용된 '악(樂)'이라는 글자에 담긴 의미는 앞서 설명한 고대로부터 전하는 유가의 악(樂) 사상에서 비롯된 말이다. 풀어 해석한 즉 '농악'은 '농경사회 농민들이 창조한 종합예술로서의 악(樂), 가(歌), 무(舞)'인 것이다.

둘째, '농악'이라는 말이 문헌상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1930년대 일본인 학자가 발행한 책자에서였고, 따라서 '농악'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만든 용어라는 주장을 살펴본다. 정병호는 '농악'이라는 용어가 1936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일본인 학자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부락제』라는 책에서 최초로 쓰였다고 주장하였고³³ 후에 김현선은 연도를 몇 년 앞당겨서, '농악'이 최초로 실린 문헌은 1931년 일본인 학자 고세이(吳諒)가 지은 『조선의 연중행사』라는 책이라고 주장하였

31 간(干)은 방패, 척(戚)은 도끼로 무무(武舞)에 사용하는 의물(儀物)이며, 우(羽)는 꿩깃, 모(旄)는 소꼬리로 장식한 깃발로 문무(文舞)에 사용하는 의물이다.

32 『禮記』樂記：凡音之起 由人心生也 人心之動 物使之然也 感於物而動 故形於聲 聲相應 故生變 變成方 謂之音 比音而樂之 及干戚羽旄 謂之樂。

33 정병호, 1986, 앞의 책, p.17

다³⁴. 단언하자면 두 가지 주장 다 사실이 아니다. 앞에서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악’과 ‘풍물’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그 결과 ‘농악’은 19세기 후반 조선의 유학자들이 만든 용어임을 밝혔으므로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은 따로 정리하지 않는다.

셋째, ‘농악’이라는 용어는 현장생활인들이 만든 용어가 아니라 지식인들이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현장 용어인 ‘풍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농악’은 19세기 후반 조선의 유학자들이 만든 용어이다. 이 용어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공용어가 되었으며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표준어로 존재해 왔다. 문헌 기록상 사용한 지 100년을 초과하는 용어를 현장용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면 한국 전통연희의 종목을 가리키는 용어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농악’뿐만 아니라 ‘풍물’도 원래 현장용어였다고 보기 어렵다. ‘풍물’ 역시 한자어이고 상류층에서 사용되다가 민간에 확산되어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나마 일부 지역에서만 현장용어로 사용된 것이어서 보편성도 없다. ‘농악’이 본시 현장용어가 아니듯이 ‘풍물’도 본시 현장용어가 아니다.

넷째, ‘농악’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지정된 것으로 일본의 가면극 능악(能樂)의 발음인 ‘노가꾸’를 농악이라 이름 붙여버린 것이라는 주장을 살펴보자. 일본의 능악(能樂)이라는 것은 노오(能)를 말하는데 노오(能)는 일본의 상류층이 즐기던 전통 가면극으로 현존하는 전 세계의 연극 중에서 최고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자부심 가득한 전통예술의 호칭인 능악(能樂)의 발음을 빌려 ‘농악’이라고 했다는 주장은 자칫 일본인들이 한국의 농악을 미화하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민간어원설이다.

다섯째, ‘농악’은 농사꾼이 하는 음악, 즉 농사일에만 쓰이는 음악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농악은 농사꾼의 예술이었다. 승려, 무당, 유랑광대 등이 농악에 관여를 했다고 해도 농악의 큰 흐름은 농민대중이 중심이 된 것이었고 그들이 농악을 가꾸고 발전시켜 왔다. 농악은 농사일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의례와 놀이, 굿 등에도 사용되었다. ‘농(農)’은 농경사회의 근간이었던 농업과 농민대중을 가리키는 말이다. 세월이 흘러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했다고 해서 농악이 다른 무엇으로 변해야 한다면, 우리는 전통농경사회에서 비롯된 언어들을 상당수 바꿔야 할 지도 모른다. 농악을 ‘농민이 하는 예술’로 이해하지 않고 ‘농경사회에서 농민에 의해 발전된 예술’로 이해할 수도 있다. 오늘날 호남의 세습무당인 단골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젊은 국악인들에 의해 ‘단골굿’은 계속 공연되고 있다. 그들의 신분이 ‘단골’이 아닌데도 ‘단골굿’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 유랑집단인 남사당패도 사라진지 오래지만 젊은 연희자들이 ‘남사당놀이’를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전통연희 종목을 지칭하는 용어에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농악도 그러한 본보기 중 하나일 뿐이다. 이 농악을 노동자나 학생이 공연한다고 해서 명칭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섯째, ‘농악’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와 친일 민속학자들의 통치적 의도에 의해 사용된 것이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일제강점 36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다. 이 시간동안 우리는 자주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경로를 밟지 못한 채 왜곡된 식민지 종속자본주의의 길을 걸었다. 문화의 식민성과 종속성도 이렇게 진행되었다. 우리의 언어가 일제강점 36년 동안 얼마나 심하게 뒤틀렸겠는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것이다. 만일 36년 동안 일제와 친일학자들에 의해 유입된 용어를 전부 사용하지 말자고 한다면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 조사하고 연구하고 창작했던 조선의 ‘민속’, ‘가면극’, ‘창극’, ‘인형극’, ‘시’, ‘소설’, ‘영화’, ‘연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

34 김현선, 1991, 앞의 책, pp.26~27

야 한다. 어떤 용어가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용어를 버리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극단적이다. 물론 '국민학교(國民學校)'나 '황국신민(皇國臣民)'처럼 일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식민통치에 악용한 용어들은 과감히 바꾸거나 없애야 한다. 그렇지만 '농악'은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용어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만든 말이다. 그것을 일제가 식민통치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사용불가 선고를 내리는 것은 우리말 전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결론

'풍물'은 조선시대부터 악기를 의미하는 용어로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왔고 현재에도 악기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역사적 정통성을 고려할 때 공연양식으로서의 '농악'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지만 '농악에 사용되는 악기'를 나타내는 용어로서는 매우 합리적이다. 여기서 '풍물'이 한자말이 아니라 순우리말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이 말이 한자말이라는 것은 재삼 강조해 둔다.

'풍물굿'은 '풍물로 하는 굿'이라는 의미로 글자 그대로 보아서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은 인정되지만 1980년대 소수의 지식인들이 만들어 낸 신조어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 물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많은 신조어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풍물굿'은 과학의 발달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들을 놓아두고 굳이 '풍물굿'이라는 신조어로 대체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풍물놀이'는 종합예술인 농악을 지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놀이, 제의, 연극, 음악, 무용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농악을 놀이라고 한정하여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풍물놀이'는 남사당놀이의 한 종목을 가리키는 용어이거나, 무대나 판에서 공연하는 선반 사물놀이를 특별히 지칭할 때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신뿔기, 당산굿, 고사소리, 도둑잡이굿 등을

'풍물놀이'라고 부르기에는 여러모로 벅차 보인다.

'농악'은 조선후기 농사꾼들이 중심이 되어 집대성한 조선 민중의 악(樂), 가(歌), 무(舞)이다. '농악'이라는 용어는 최소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용어이며 사전적인 뜻으로 보아서나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용어이다. 우리 선조들은 악(樂)이라는 용어를 악기연주, 무용, 노래, 놀이, 제의 등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종합예술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농악'은 농경사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농민들 스스로가 창조하고 발전시킨 민중적 종합예술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농악'은 오래 전부터 표준어로 인정되어 현장에서 사용되었고 전국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용어지만 '풍물'은 제한적으로 통용되었고 현재에도 그렇다. '농악'과 '풍물'이 현장용어가 아니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면 매구, 매귀, 풍장, 두레, 굿, 걸궁, 걸립, 군물, 군고, 금고 중에서 선택해야 하지만 그러기는 매우 어렵다. 농악을 지칭하는 각 지방의 용어들은 농악의 지역적 특성을 함의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귀중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편화한 용어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렇다면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악'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상류층의 용어라도 대중화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상류층의 용어가 아니라 민중들의 용어이다. 김매기 소리나 상여소리 등 현장에서 불리던 민요의 가사에 상류층의 어려운 한자말이 섞여 들어가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풍물'은 악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야 하며 '풍물놀이'는 남사당놀이 6개 종목 중의 하나를 지칭하는 용어이므로 현재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농악'이 종합예술의 의미가 내포된 가장 합리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

참 / 고 / 문 / 헌

- 『甲午記事』
- 『高麗史』
- 『東國歲時記』
- 『盧尙樞日記』
- 『梅泉野錄』
- 『鳳城文餘』
- 『三國史記』
- 『三灘先生集』
- 『宣祖實錄』
- 『惺所覆瓿藁』
- 『星湖僊說』
- 『純祖實錄』
- 『承政院日記』
- 『輿地圖書』
- 『櫟翁稗說』
- 『燕山君日記』
- 『禮記』
- 『慵齋叢話』
- 『耘谷行錄』
- 『叢鎖錄』
- 『秋江先生文集』
- 『漢陽歲時記』
- 『개벽』 16호 1921.10.18
- 『신동아』 1968년 7월호
- 〈농민주보〉
- 〈동아일보〉
- 〈문화일보〉
- 〈조선일보〉
- 〈중앙신문〉
- 〈강원일보〉
- 〈서울신문〉

- 권은영, 2004, 『여성농악단 연구』, 신아출판사
- 김인우, 1987, 「풍물굿과 공동체적 신명」 『민족과 굿』, 학민사
- 김정현, 2009, 『한국농악의 역사와 이론』, 한국학술정보
- 김헌선, 1991, 『風物굿에서 四物놀이까지』, 귀인사
- 남운용, 1968, 「庶民의 囑采속에 流浪 五十年」 『신동아』 1968년 7월호, 동아일보사

- 노광일, 1985, 「풍물의 새로운 이해」, 『문화운동론1』, 공동체
- 신용하, 1984, 「두레공동체와 농악의 사회사」, 『한국사회연구』2, 한길사
- 심우성, 1974, 『남사당패 연구』, 동문선
- 심우성, 1968,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40호 남사당』
- 심우성, 1988, 「사물놀이 명칭의 숨은 내력」, 『민속문화론 서설』, 동문선
- 오수경, 1999, 「社祭와 儺禮의 결합양상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연구2』,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 이보형, 1978, 「농악의 용어 해설」, 『문학사상72』, 문학사상사
- 정병호, 1986, 『농악』, 열화당
- 주강현, 1997, 『우리문화의 수수께끼2』, 한겨레신문사
-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지음, 1941, 『조선의 향토오락』, 조선총독부, 박전열 역, 1992, 집문당

Mun Hwa Jae Vol 42, No. 04, December 2009, pp. 96-111

Copyright ©200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Checking the Validity of 'Nongak' and 'Pungmul', and Objection to the Criticism of 'Nongak'

Kim, Jeong Heon

Namwon Civic Traditional music Institute

Received : 24 October 2009 | Revised : 27 November 2009 | Accepted : 8 December 2009

Abstract

This essay is a study aimed at rationality and utility of two terms, 'Nongak' and 'Pungmul'. I examined how the terms have been today, by diachrony based on review of historical material. I tried to secure the historical context and basis about my argument, quoting many historical material from Korea Dynasty period, Joseon Dynasty period and the colonial period of the imperial Japan during 1910-45 to today.

I examined many objective arguments about the 'Nongak', and pointed out the mistake of the objective argument. And I examined the means and rationality of the terms, 'Nongak', 'Pungmul', 'Pungmulgut', 'Pungmulnory'.

The 'Pungmul' has been used as the means of instrument for a long time from Joseon Dynasty period. It is only rational using as the means of instrument but as the means of Performance of Nongak considering the historical legitimacy. The 'Pungmul' is Sino-Korean word, not korean native letter. The Pungmulgut means the 'ritual by Pungmul', so it can be recognized the rationality, but have a weak point that it is a neologism being made by some intellectuals in 1980s. In addition to, it is not used im performing field. 'Pungmulnory' has a limit to call the Nongak as a synthetic art. 'Nongak' means a synthetic art that farmers who were absolute majority in agrarian society of Korea have made and developed. So I conclude that 'Nongak' is the best rational term.

Keywords | Nongak, Pungmul, Pungmulgut, Pungmulnory, Keolrip